

## 바이오스페이스를 이끄는 맥가이버의 후예들

전산정보팀은  형  
남자다.



체성분 분석기로 국내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바이오스페이스. 연초부터 8점 다주파수 체성분 분석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발표해 승승장구 중이다. 바이오스페이스에서 체성분 데이터 분석프로그램을 만드는 전산정보팀은 프로그래밍은 물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의 관리부터 상담, 사내 전산관리까지도 책임지고 있다. 단 세 명의 힘으로 이 많은 업무를 거뜬히 치러내니 슈퍼맨의 체력이 따로 없다.

“물론 벽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 효율은 높으니 최고의 소수 정예팀 아니겠습니까.”

온사마의 아우라가 물씬 풍기는 고재홍 팀장은 B형이다. 자주성이 강한 혈액형을 타고난 그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소탈한 자유주의자다. 회의를 할 때도 따로 자리를 만들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그때그때 뒤로 돌아앉아 의견을 나눈다.

“팀워크 비결은 모르겠지만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함께예요. 한 사람이라도 일이 덜 끝나면 다들 퇴근도 안 해요. 그리고 보면 개인플레이 없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네요.”

고재홍 팀장을 보좌해 4년째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작전참모 신중훈 사원 역시 B형이다. 여기에 병역특례로 입사한 순수청년 김순환 사원까지 합세해 막강 B형 클럽이 탄생했다. 이들이 돌아앉아 논의에 열중할 때면 다른 직원들은 싸우는 줄로 알고 구경을 올 정도라 하니 이 열혈남들의 일상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1년 전 새해 계획이 장가가는 것이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올해도 결혼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청춘사업에는 열일 제쳐두고 적극 지원한다는 고재홍 팀장. 셋 다 성격이 안 좋아 오히려 잘 맞는다며 즐거이 맞장구치는 그들은 술잔 아래 삼위일체가 된다. 무르익은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술잔을 타고 자유롭게 오가면 수렴과 결정도 그만큼 수월하고 빠르다.

B형 남자로 사는 설움을 딛고 바이오스페이스의 명실상부한 맥가이버팀으로 자리 잡은 전산정보팀. 올해는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팀매출을 높히겠다고 말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맹렬히 일하는 데 행복이 있다는 그들의 열정적 표정에서 바이오스페이스의 탄탄한 미래를 본다.

: